

“5·18 진상규명 최선... 진실토대 화해·통합의 길 가야”

文 대통령, 5·18 폼페이·왜곡 경고
“민주주의 기본, 표현의 자유 존중 폼페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나 법적 정리된 사안, 지금까지 왜곡 일부정치권, 확대 재생산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폼페이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의 폼페이나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폼페이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과 관련한 폼페이나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표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

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 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 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폼페이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헌법적 가치’도 언급했다. 4·19혁명만으로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만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출연한 방송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5·18 40주년... 여야지도부, 광주 집결

민주당, 기념식 후 5·18묘지 참배
전일빌딩245서 현장 최고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로 향한다.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21대 총선 당선인과 함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 이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이는 민주당 주요 정책성인 5·18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현장 최고위가 열리는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다. 빌딩 이층에 붙은 숫자는 5·18 당시 건물에 남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총탄 흔적 245개를 뜻한다. 이에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빌딩도 둘러본다.

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도 17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참여하

는 공동발의 형태로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5·18민주묘지도 참배한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 불거진 ‘극우’, ‘막달’ 프레임이 벗겨지고, 혁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통합당은 영남권을 제외하면 21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패배한 상황이다. 이에 보수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광주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지도부는 5·18 관련 논란 발언에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이유를 마련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폼페이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폼페이하고 모욕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영훈 기자



신선농산물 비규격품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농식품부

못난이 농산물 수요처 확보 ‘수출 효자’로

농식품부, 11개사 참여 다자간 협약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규격 농산물은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속도,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 자체 폐기하거나

농식품부, 11개사 참여 다자간 협약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과, 케이베리, 케이그레이프, 케이머쉬), 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푸드빌, 커피베이, 디담 등)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와 메뉴 개발,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직원 임금·퇴직금 고의체불 후 해외도피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입국... 10년만에 구속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 체불하고 해외 도피했던 한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국내 입국했다가 10년 만에 붙잡혔다.

17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 82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 도피한 후 장기 체류해오던 사업주 정모씨(남, 43)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정 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2010년 5

월 1일 해외 도피해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와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자금을 마련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올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이날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연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한용수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

고용부, 네이버 해피빈 기획전 등

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우선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이 진행된다. 해피빈은 네이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목적의 기부, 출자, 공감 가게 등을 운영하는 누리집이다.

기획전은 1차(5월18일~6월18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 2차(6월22일~7월10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GS홈쇼핑, SK스토아 등 TV홈쇼핑사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특별판매하는 기부방송을 시작한다. 이달 20일부터 소비자 반응이 좋은 친환경 화장품과 만두, 죽, 키조개 등 4개 상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0여 개 상품이 방송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